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 전북도 내년도 국비 확보 '정조준'

송하진 지사, 기재부·예산총괄심의관 등 방문 심의단계 막바지 안간힘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9일, 기재부를 방문,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기재부를 방문한 송 지사는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경제·사회·복지예산심의관과 주요사업 담당 과장 등을 만났다. 먼저, 매년 평균 1조원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새만금 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동시 준공을 위한 예산 5,6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2016.12~20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비 예산 10억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지역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매립,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을 위한 예산 14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VIP의 관심과 의지를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206억),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750억) 사업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사업 시설 건립 등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1~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예타 통과를 미루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조성(25억)',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20억)',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40억)'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예타통과와 사업착수를 위한 2018년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10억)',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10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65억)' 등에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9월 1일까지 2018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그 이전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단계에는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정 주요현안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피서철 안전 먹거리 책임진다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투입 식품취급업소 300개소 점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일환으로 피서철을 대비하여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여름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98명의 단속반을 투입, 총 11개 시·군 19개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300개소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피서철 대비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축산위생물관리법 ▲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 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등 『수질 및 수계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하여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 무허가 도축행위 2개소, ▲ 허가받은 외 영업 1개소 ▲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개소 ▲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 원료 사용 3개소를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량 폐기처분 하는 등 특히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분 열람·의견접수

전라북도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2017년 6월 1일 기준 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분을 주택소재지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이번 열람하는 전북지역의 개별주택 대상은 추가공시분으로 2017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주택과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총 열람건수는 3,098건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국제(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가격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의 청년다움을 나타내는 청년 week지역축제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여 14개 빛깔의 시군 청년들을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YOLO(You Only Live Once, 한번뿐인 삶)와 가면을 테마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현재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 KT&G(전주 객사4길)에서 열린다. 청년week지역축제는 지역청년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하고 행사개최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청년문화의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

하고 있다. 청년Week축제추진단에서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Day를 개최해 14개 시군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청년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전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했고, 도내 대학생과 청년정책포럼(문화분과)의 합류로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이 진척 청년다워지고 있다. 올해 청년축제의 프로그램 중, 청년농부가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 시울할 수 있는 플라마켓, 청년의 아픔, 실패, 도전, 희망을 공유 소비하는 경합마켓, 가면에 자신의 감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가면살롱은 새로운 축제문화를 시도하는 실험으로 주목 받고 있다.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작품 전시 및

각리다길 청년점포와 연계하여 전시를 관람한 청년에게 할인 이벤트를 제공해주며, '청년점포 찾아가는 버스킹' 운영으로 공연을 통한 축제 홍보에 주력하며, 8월 26일 축제집중의 날에는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비,여가,휴식,소통문화의 9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청년을 만날 계획이다. 전해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에 의한 축제로 지역의 역동적인 청년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면서 청년축제를 시작으로 청년 문화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21일~26일 청년week지역축제 개최

#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폭염피해 최소화 당부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사진)은 9일, 폭염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창군 해리면, 공음면 무더위쉼터 등을 방문하여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에서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물스카프, 수박 등을 나누어주고 쉼터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냉방기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고 이어 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 방문,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를 마쳤다. 올해 폭염특보일수는 지난 6월 16일 첫 폭염특보발효 이후 23~24일로 작년 동기 대비 124% 증가, 83만4천 마리의 축산피해와 104명의 운영질환자가 발생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폭염특보시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고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쉼터 등에서 2시간 정도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천 사항"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